

산업분석

은행

추정이 무색한 서프라이즈

2017. 07. 21

Analyst
이병건
02 369 3381
pyrrhon72@dongbuhappy.com

Investment Points

대손비용, 놀라운 수준으로 개선: 추정보다 더 나은 실적이 나올 것은 내심 기대하고 있었던 바이지만, 발표된 실적은 그 이상이였다. KB금융은 동부추정치를 19.2% 상회한 9,901억원의 지배주주순이익을, 신한지주는 동부추정치를 36.0% 상회한 8,920억원의 지배주주순이익을 시현했다. 2016년말 크게 늘어난 대출을 기반으로 NIM이 소폭이나마 개선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본시장의 흐름도 긍정적이어서 탐라인 개선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었지만, 대손비용 감소는 놀라운 수준이었다. KB, 신한 각각 거의 2천억원 정도 추정했던 것보다 대손비용이 덜 들어갔는데, 최근 주택시장 활황과 양호한 경기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상당 기간 기대 이하의 대손비용률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해 실적전망을 대폭 상향했다.

자영업자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 높지 않고, 성장을 높은 은행의 마진 개선폭이 클 것: 은행들이 대출 증가율을 2~3%로 낮춰 잡고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율 하락의 영향이 우려만큼 크지는 않을 수 있다. 결국 은행들의 대출 증가율은, 광의의 가계대출로 분류할 수 있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강한 규제가 이루어질 것인가와 정책모기지 집행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가 은행들의 대출 성장을 직접적으로 제약할 정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대출을 공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마진 개선이 결국 대출금리 상승에 달려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출증가율이 높은 은행의 마진 개선폭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Action

은행주의 저금리 수혜가 드디어 실현되는 국면. 지금의 추정도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아: 과거 한 때 “은행주는 mild한 recession에서 금리가 서서히 떨어질 때 좋다” 는 해석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시중 금리가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음에도 은행주에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그것은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어 부작용은 극대화되었지만 저금리의 긍정적인 수혜는 이제 막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저금리로 인해 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는 상황에서 대손비용은 낮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서서히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의 마진도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견조한 이익전망을 바탕으로 배당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KB금융이 우리의 Top Pick이다. **한국면이 그대로 지속된다면, 아마도 우리가 전망하고 있는 지금의 대손비용도 너무 보수적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KB금융, 실적전망 상황에 따라 목표주가도 상향

대손비용 감소가 실적
서프라이즈의 가장 큰 이유

2Q17 KB금융은 +70.6%YoY로 동부추정치를 19.2% 상회한 9,901억원의 지배주주순이익을 시현했다. 세부사항 차이는 대부분 2분기 중 이루어진 KB손보 연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서프라이즈는 신용손실충당금이 528억원에 그쳐 추정치 대비 거의 2천억원 적게 잡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650억원의 거액 충당금 환입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분기 대손비용은 크게 개선된 것이다.

대손 전이율 가정을 크게 변경해
실적전망을 대폭 상향

회사측에서는 “특이요인이나 환입을 빼고 보더라도 전이가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어, 목표인 40bp 대손율 이내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2분기 대손충당금 전입비율은 8bp, 상반기 누계로 23bp에 그쳤다. 우리는 소호 및 가계여신 위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대손 전이율 가정을 크게 변경해 실적전망을 대폭 상향한다.

도표 1. KB금융 2Q17 실적 Review 및 실적전망 변경

(단위:십억원)

	2Q17P	2Q16		1Q17		2Q17E		2017E		2018E	
			YoY		QoQ		차이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순이자이익	1,939	1,545	25.5	1,726	12.3	1,738	11.6	7,633	7,112	8,286	7,718
비이자이익	552	344	60.4	583	-5.2	517	6.7	2,292	1,997	2,237	1,997
판관비	1,322	1,069	23.7	1,167	13.3	1,187	11.4	5,203	4,658	5,458	4,790
신용손실충당금	53	195	-72.9	255	-79.3	253	-79.1	680	1,031	859	1,159
지배주주지분순이익	990	580	70.6	870	13.8	831	19.2	3,446	3,055	3,285	2,973
보통주순이익	990	580	70.6	870	13.8	831	19.2	3,446	3,055	3,285	2,973

자료: 동부 리서치

분기 이익체력은 8천억원대
중반으로 높아져

2분기 실적에서 특이요인은 KB손보 여가매수차액 1,210억원과 과거 발생했던 여가매수차액에 대해 부담했던 세금 환급분 195억원으로 추정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외 국고채 매각으로 700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했고, 증권 파생모델 통합 관련 작년 인식했던 손실이 250억원 가량 환입되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회적 이익은 1천억원대 초반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대손비용이 낮게 유지되는 한 KB금융의 분기 순이익 체력은 8천억원대 중반으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판단한다.

배당도 50% 이상 늘어날 것
목표주가 79,800원으로 상향

전년 수준의 배당성향을 유지하더라도 이익이 대폭적으로 증가해 주당배당금은 작년의 1,250원 대비 크게 증가한 2,000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익체력의 대폭적 개선으로 인해 2018~2019년 ROE는 9%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해 PBR 1.0배 적용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Target P/B를 1.0배로 상향해 목표주가를 79,800원으로 상향하며 은행업종 Top Pick으로 매수 추천한다.

신한지주, 대손비용 절감에 따라 실적 서프라이즈 기록

대손비용 감소 및 비자카드 주식
매각이익 실현이 서프라이즈의
가장 큰 이유

2Q17 신한지주는 +30.5%YoY로 동부추정치를 36.0% 상회한 8,920억원의 지배주주순이익을 시현했다. 우리가 추정에 반영하지 않았던 비자카드 매각이익 1,158억원이 실현된 것과 대손비용이 크게 줄어든 것이 실적 서프라이즈의 주 원인이다. 대손비용이 지속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가정을 변경하여 실적전망을 대폭적으로 상향했다.

도표 2. 신한지주 2Q17 실적 Review 및 실적전망 변경

(단위:십억원)

	2Q17P	2Q16		1Q17		2Q17E		2017E		2018E	
			YoY		QoQ		차이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순이자이익	1,915	1,772	8.1	1,869	2.4	1,903	0.6	7,616	7,623	7,999	7,978
비이자이익	479	540	-11.3	583	-17.9	443	8.0	1,910	1,914	1,624	1,664
판관비	1,078	1,089	-1.0	1,065	1.3	1,164	-7.3	4,571	4,656	4,836	4,836
신용손실충당금	160	333	-52.0	89	79.1	305	-47.7	664	1,064	914	1,434
지배주주지분순이익	892	683	30.5	997	-10.5	656	36.0	3,265	2,880	2,903	2,521
보통주순이익	888	670	32.4	991	-10.4	650	36.6	3,250	2,855	2,895	2,497

자료: 동부 리서치

분기 이익체력은 8천억원대
내외로 높아져

일회적 요인을 제외하고 보면 대손비용의 안정화를 통해 경상적 분기순이익은 8천억원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판단한다. 신용카드부문에서 8월부터 이루어질 수수료율 인하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자카드 주식 매각이익 1천억원 이상이 하반기에도 실현될 것으로 보여 양호한 실적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주가 66,000원으로 상향
다만 상대적 매력은 다소 떨어져

배당성향이 전년의 24.8%보다 소폭 상향된 25%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해, 주당배당금도 1,450원에서 21%가량 증가한 1,75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년에는 대손충당금 환입금액 및 유가증권 매각 이익 감소로 인해 주당배당금을 1,800원 이상으로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배당은 우리가 예상한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2018~2019년 ROE는 8.5%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해 PBR 1.0배 적용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Target P/B를 1.0배로 상향해 목표주가를 66,000원으로 상향한다. 업종 전체적인 이익전망 상향 흐름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 접근이 유효하나, 상대적인 매력은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타라인 분석 ; 대출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고 NIM은 소폭이나마 개선

2분기 여신 성장은

KB > 신한 > 우리

은행들의 여신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자본관리에 치중하면서 여신증가금액이 크지 않은 가운데 KB금융의 국민은행이 2분기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여전히 주택담보대출과 소호대출 중심으로 여신을 증가시키고 있는 반면, 신한은행의 경우 가계일반대출쪽에서 여신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자영업자 대출 규제의 대폭적 강화
가능성은 높지 않아

은행들이 대출 증가율을 2~3%로 낮춰 잡고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율 하락의 영향이 우려만큼 크지는 않을 수 있다. 결국 은행들의 대출 증가율은, 광의의 가계대출로 분류할 수 있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강한 규제가 이루어질 것인가와 정책모기지 집행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가 은행들의 대출 성장을 직접적으로 제약할 정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대출을 공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표 3. 국민은행 여신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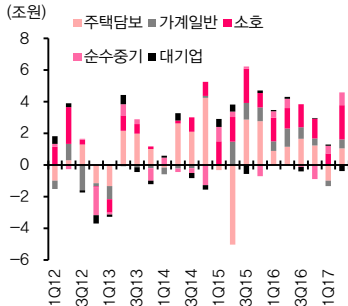


도표 4. 신한은행 여신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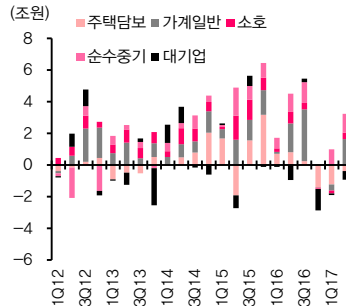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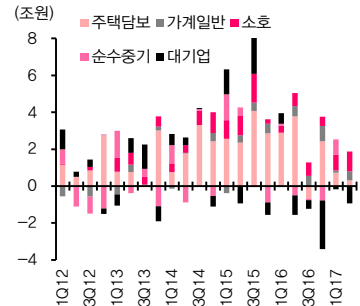


도표 5. 우리은행 여신 증가 추이



자료: 각사, 동부 리서치

여신증가와 NIM 개선의 정도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은행지주의 NIM을 볼 때는 그룹기준 숫자가 아니라 은행의 NIM을 보는 것이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다. 대형 금융지주사들은 카드사가 은행에서 분리되어 있는데, 신용카드는 조달금리가 시장에 연동되는데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의 영향을 받아 은행의 NIM과 전혀 다른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은행 기준으로 NIM은 국민은행이 1.72%로 6bp, 신한은행이 1.56%로 3bp, 우리은행이 1.45%로 1bp 개선되었다. 국민은행의 경우 신보료와 관계된 일시적인 요인이 일부 영향을 주었지만, 일단 3개 은행을 비교할 때 여신증가와 NIM 개선의 정도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장금리의 상승세가 본격화되지 않는 한 은행들의 분기별 NIM 개선 폭은 1~2bp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은행들간의 경쟁이 줄어들었다 신규여신의 예대마진이 개선되고 있는데, 이에 대출증가율이 높은 은행이 마진 개선폭도 상대적으로 큰 국면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시장금리의 상승세가 본격화되지 않는 한 은행들의 분기별 NIM 개선 폭은 1~2bp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도표 6. 국민은행 예대마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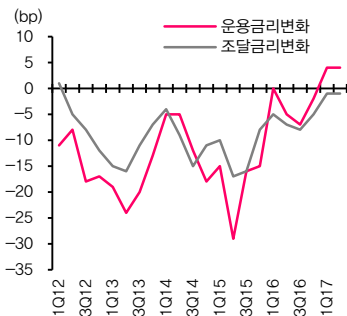


도표 7. 신한은행 예대마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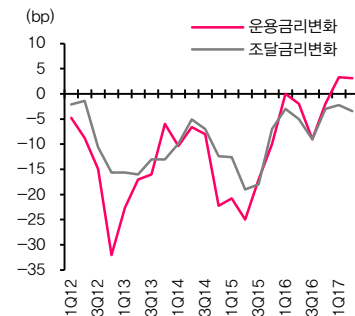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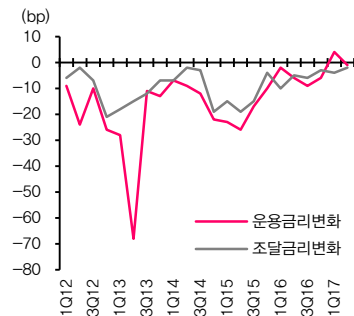


도표 8. 우리은행 예대마진 분석



자료: 각사, 동부 리서치

지금의 추정도 너무 보수적일 가능성이 있음

대손비용이 더 줄어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과거 한 때 “은행주는 mild한 recession에서 금리가 서서히 떨어질 때 좋다”는 해석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시중 금리가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음에도 은행주에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그것은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어 부작용은 극대화되었지만 저금리의 긍정적인 수혜는 이제 막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저금리로 인해 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는 상황에서 대손비용은 낮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서서히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의 마진도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현국면이 그대로 지속된다면, 아마도 우리가 전망하고 있는 지금의 대손비용도 너무 보수적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대차대조표

12월 결산(십억원)	2015	2016	2017E	2018E	2019E
현금및예치금	16,316	17,885	19,716	20,498	21,314
유가증권	52,049	74,765	82,154	84,201	86,332
대출채권	233,268	251,962	264,375	274,851	285,803
신용카드채권	11,738	13,524	13,373	13,864	14,410
유형자산	3,287	3,627	4,227	4,227	4,227
무형자산	467	652	7,785	17,293	26,802
기타자산	9,384	8,991	18,112	18,112	18,112
자산총계	329,065	375,674	411,831	435,220	459,262
예수부채	224,268	239,730	252,015	262,002	272,442
차입부채	16,241	26,251	27,167	28,270	29,418
사채	32,601	34,992	35,292	35,292	35,292
기타부채	24,727	39,632	61,602	71,353	81,251
부채총계	300,163	344,412	378,134	399,059	420,632
자본금	1,932	2,091	2,091	2,091	2,091
신종자본증권	0	0	0	0	0
자본잉여금	15,855	16,995	16,989	16,989	16,989
이익잉여금	10,464	12,229	14,383	16,789	19,200
자본조정	0	-722	-801	-801	-80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30	405	699	699	699
비지배주주지분	222	263	336	395	453
자본총계	28,903	31,261	33,696	36,161	38,631
수정자본총계	28,681	30,998	33,360	35,766	38,177

비율분석

12월 결산(% 배)	2015	2016	2017E	2018E	2019E
Dupont Analysis					
순이자이익률	1.9	1.8	1.9	2.0	1.9
비이자이익률	0.4	0.3	0.6	0.5	0.5
Credit Cost	0.3	0.2	0.2	0.2	0.2
수정 ROA	0.5	0.6	0.9	0.8	0.8
수정 Equity Multiplier	11.4	11.8	12.2	12.3	12.1
수정 ROE	6.1	7.2	10.7	9.5	9.1
자본적정성					
Core Tier1 비율	13.5	14.2	13.9	14.2	14.4
Double leverage	103.7	106.7	103.7	100.3	96.6
자산건전성					
손상채권비율	1.2	0.9	0.8	0.7	0.6

자료: KB금융, 동부 리서치

손익계산서

12월 결산(십억원)	2015	2016	2017E	2018E	2019E
순영업수익	7,382	7,445	9,925	10,523	10,822
순이자이익	6,203	6,403	7,633	8,286	8,594
비이자이익	1,179	1,042	2,292	2,237	2,228
판관비	4,524	5,229	5,203	5,458	5,571
신용손실반영전 영업손익	2,858	2,216	4,722	5,065	5,251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1,037	539	680	859	960
영업이익	1,821	1,677	4,042	4,206	4,291
영업외손익	344	952	302	204	232
세전이익	2,165	2,629	4,344	4,411	4,523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1,731	2,190	3,508	3,343	3,429
지배주주지분순이익	1,702	2,144	3,446	3,285	3,370
수정지배주주순이익	1,702	2,144	3,446	3,285	3,370
비지배주주지분순이익	29	46	61	59	59
증감률(%YoY)					
순영업수익	2.6	0.9	33.3	6.0	2.8
신용손실반영전 영업손익	-10.3	-22.5	113.1	7.3	3.7
세전이익	13.9	21.4	65.2	1.5	2.5
수정지배주주순이익	21.5	26.0	60.7	-4.7	2.6
EPS	68.7	90.3	70.3	-9.9	8.5
수정EPS	68.7	90.3	70.3	-9.9	8.5
자산총계	6.7	14.2	9.6	5.7	5.5

주요 투자지표

12월 결산원 % 배	2015	2016	2017E	2018E	2019E
주당지표(원)					
EPS	4,405	5,648	6,889	6,675	6,852
수정EPS	4,405	5,648	6,889	6,675	6,852
BPS	74,234	74,138	77,605	82,068	86,567
Multiple(배)					
P/E	7.5	7.6	6.2	6.4	6.2
P/B	0.4	0.6	0.6	0.5	0.5
배당지표					
DPS	980	1,250	2,000	2,200	2,400
배당성향	21.9	22.7	22.7	26.3	27.9
배당수익률	3.0	2.9	4.7	5.1	5.6
Cost-income ratio	61.3	70.2	52.4	51.9	51.5

Compliance No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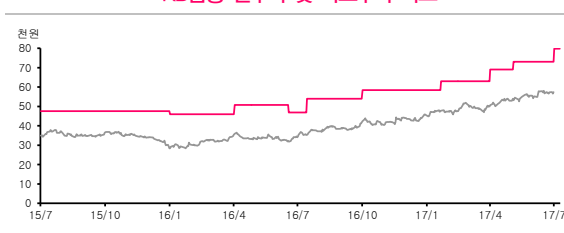
- 자료 발간일 현재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한 종목들의 IPO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내용은 기관투자자 등에게 지난 6개월간 E-mail을 통해 사전 제공된 바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1년간 투자이전 비율 (2017-06-30 기준) - 매수(67.1%) 중립(32.9%) 매도(0.0%)

- 기업 투자이전율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률 기준임
- Buy: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Hold: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perform: 초과 상승률 -10%p 미만

- 업종 투자이전율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률 기준임
- Ov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Neutral: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미만

KB금융 현주가 및 목표주가 차트



최근 2년간 투자이전 및 목표주가 변경

일자	투자이전	목표주가	일자	투자이전	목표주가
16/01/21	BUY	46,000	17/05/24	BUY	73,000
16/04/22	BUY	50,800	17/07/21	BUY	79,800
16/07/08	BUY	46,900			
16/08/03	BUY	53,900			
16/10/21	BUY	58,400			
17/02/10	BUY	63,000			
17/04/15	BUY	66,800			
17/04/21	BUY	69,000			

대차대조표

12월 결산(십억원)	2015	2016	2017E	2018E	2019E
현금및예치금	22,024	19,181	19,842	20,606	21,400
유가증권	76,434	87,933	86,417	89,730	93,177
대출채권	227,951	239,602	247,857	257,400	267,320
신용카드채권	18,497	19,408	19,979	21,138	22,481
유형자산	3,038	3,146	3,006	3,006	3,006
무형자산	4,275	4,227	4,235	4,227	4,219
기타자산	16,322	19,168	24,290	24,290	24,290
자산총계	370,545	395,680	407,329	422,169	437,737
예수부채	217,676	235,138	243,239	252,604	262,339
차입부채	21,734	25,294	26,321	27,390	28,502
사채	41,221	44,327	44,327	44,327	44,327
기타부채	55,499	55,648	57,829	60,049	62,538
부채총계	338,730	363,935	374,074	386,825	400,260
자본금	2,645	2,645	2,645	2,645	2,645
신종자본증권	737	498	199	199	199
자본잉여금	9,887	9,887	9,887	9,887	9,887
이익잉여금	17,694	18,640	20,316	22,365	24,458
자본조정	-424	-458	-397	-397	-397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05	-103	-253	-253	-253
비지배주주지분	970	635	857	897	936
자본총계	31,815	31,745	33,255	35,344	37,477
수정자본총계	29,008	29,511	31,098	33,148	35,241

비율분석

12월 결산(%, 배)	2015	2016	2017E	2018E	2019E
Dupont Analysis					
순이자이익률	1.9	1.9	1.9	1.9	1.9
비이자이익률	0.6	0.4	0.5	0.4	0.4
Credit Cost	0.4	0.3	0.2	0.2	0.3
수정 ROA	0.6	0.7	0.8	0.7	0.7
수정 Equity Multiplier	12.5	13.1	13.2	12.9	12.6
수정 ROE	8.0	9.3	10.7	9.0	8.7
자본적정성					
Core Tier1 비율	10.6	11.2	11.6	12.1	12.5
Double leverage	120.9	120.3	119.7	119.1	118.6
자산건전성					
손상채권비율	0.7	0.6	0.6	0.6	0.6

자료: 신한지주, 동부 리서치

손익계산서

12월 결산(십억원)	2015	2016	2017E	2018E	2019E
운영업수익	8,712	8,813	9,526	9,623	10,050
순이자이익	6,693	7,205	7,616	7,999	8,360
비이자이익	2,019	1,608	1,910	1,624	1,690
판관비	4,475	4,509	4,571	4,836	5,008
신용손실반영전 영업손익	4,237	4,304	4,955	4,788	5,042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1,264	1,196	664	914	1,083
영업이익	2,973	3,109	4,292	3,874	3,960
영업외손익	167	62	44	8	10
세전이익	3,141	3,170	4,336	3,881	3,970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2,446	2,825	3,305	2,943	3,010
지배주주지분순이익	2,367	2,775	3,265	2,903	2,970
수정지배주주순이익	2,271	2,720	3,250	2,895	2,962
비지배주주지분순이익	79	50	40	39	39
증감률(%YoY)					
운영업수익	5.1	1.2	8.1	1.0	4.4
신용손실반영전 영업손익	10.7	1.6	15.1	-3.4	5.3
세전이익	9.5	0.9	36.8	-10.5	2.3
수정지배주주순이익	14.2	19.8	19.5	-10.9	2.3
EPS	44.0	55.1	56.6	-35.5	7.4
수정EPS	45.3	63.3	62.4	-35.0	7.4
자산총계	9.6	6.8	2.9	3.6	3.7

주요 투자지표

12월 결산(원, 배)	2015	2016	2017E	2018E	2019E
주당지표(원)					
EPS	4,992	5,851	6,886	6,123	6,264
수정EPS	4,789	5,736	6,854	6,104	6,245
BPS	61,172	62,234	65,580	69,903	74,316
Multiple(배)					
P/E	8.3	7.9	6.6	7.4	7.2
P/B	0.6	0.7	0.7	0.6	0.6
배당지표					
DPS	1,200	1,450	1,750	1,800	1,850
배당성향	23.9	24.3	25.1	29.0	29.1
배당수익률	3.0	3.2	3.9	4.0	4.1
Cost-income ratio	51.4	51.2	48.0	50.3	49.8

Compliance No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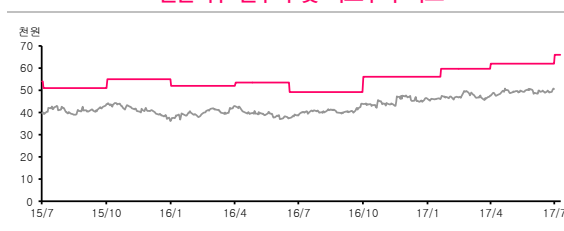
- 자료 발간일 현재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한 종목들의 IPO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내용은 기관투자자 등에게 지난 6개월간 E-mail을 통해 사전 제공된 바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1년간 투자자의 비율 (2017-06-30 기준) - 매수(67.1%) 중립(32.9%) 매도(0.0%)

- 기업 투자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을 기준으로
 - Buy: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Hold: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perform: 초과 상승률 -10%p 미만

- 업종 투자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을 기준으로
 - Ov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Neutral: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미만

신한지주 현주가 및 목표주가 차트



최근 2년간 투자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일자	투자자의견	목표주가	일자	투자자의견	목표주가
15/07/23	BUY	51,000	17/07/21	BUY	66,000
15/10/22	BUY	55,000			
16/01/21	BUY	52,000			
16/04/22	BUY	53,500			
16/07/08	BUY	49,200			
16/10/21	BUY	56,100			
17/02/09	BUY	59,700			
17/04/21	BUY	62,000			